



6 일생의례

6. 일생의례

일생의례(一生儀禮)란 사람이 태어나 죽기까지 한 평생을 살 때 특히 삶의 중요한 고비라 생각하는 시기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의례를 말하는데, 그러기에 일종의 통과의례(通過儀禮)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우리 민족은 삶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를 출산, 백일, 돌, 혼인, 환갑, 죽음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때에는 특별히 다양한 의례를 행했다.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도 특별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일날 차려지는 상에는 의례 미역국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일 중에서도 첫 번째와 육십 번째 맞는 생일은 보통 때의 그것보다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의례를 베풀었는데 바로 돌과 환갑이다. 이러한 첫돌과 회갑 외 출산과 백일, 혼인, 그리고 죽음을 인생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고비라 생각하고 이 때 많은 의례를 행해 왔다. 일생의례의 의식이나 절차 속에는 대개 건강과 장수, 부, 행복, 자손번성, 집안의 평안 등을 기원하는 내용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 내용을 통해서는 각 개인이나 집단이 가졌던 공동체적 가치 및 인식의 기저가 무엇이었나를 엿볼 수 있다.

대성동마을은 4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마을로 볼 수 있지만, 휴전과 더불어 군사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마을'로서 더 의미를 가진다. 주민들은 대개 혹독한 전쟁 속에서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이곳을 지켰거나, 아니면 잠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와 고향을 지킨 사람들이나 혹은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휴전 후 일정기간 후방으로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은 민사차에서 내주는 트럭을 타고 일주일에 한번만 후방으로 나갈 수 있었고, 이 때 만일 당일로 돌아오지 못하면 외부에서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 상황은 그들이 겪었던 의

례, 그 중에서도 특히 결혼식에 반영되어 있다.

최근에는 일생의례의 방법이나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대개 집에서 행하던 출산, 돌잔치, 혼인식, 환갑잔치, 상장례 등을 이제는 가까이 있는 문산이나 금촌에 나가 행하고 있다. 출산은 문산에 있는 병원에서 돌잔치는 문산에 있는 회관이나 식당을 얻어 한다. 혼인은 거의 대부분 문산이나 금촌에 있는 예식장에서 한다. 환갑잔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외부로 나가서 하다가 이제는 그나마도 거의 하지 않고, 외부에서 칠순잔치를 하고 있다. 장례도 예전에는 집에서 임종을 맞고, 마을에 있는 상여로 행상이 나갔지만 지금은 문산에 있는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한다. 그리고 시신도 매장보다는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모시고 있다.

대성동마을의 일생의례는 마을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기록했다.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의례 내용은 집집마다 다소 다르다.

6-1 혼자서 삼 가르고 - 출산

여성은 결혼을 한 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계를 이어간다. 대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동네의 단골 만신과 의논을 하거나 절에 가서 아이 낳기를 기원한다. 대성동 여성들도 이와 같았다. 대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잘 낳았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어찌 예조가 없으랴? 그래서 엄마가 될 사람, 혹은 주변의 친인척들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꿈을 꿉 주었다. 바로 태몽이다. 사람들은 이 태몽을 통해 아이의 앞날을 예견했다. 출산이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적 행위이며,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연속성을 갖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막상 이와 같은 위대한 창조적 행위에는 많은 위험이 수반되기에 여러 가지 의례가 행해졌다.

1) 태몽꿈 꾸기

태몽은 예전부터 태어날 아이의 앞날을 예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사람들은 이런 꿈을 통해 태어날 아이의 성별이나 사회에서의 출세 등을 점쳐왔다. 꿈을 꾸는 사람들

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는데 태몽만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을 때는 꿈 내용이 다른데, 그것이 맞다고 하며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1) 김O예 씨의 경우

“첫 아이는 그냥 구렁이를 꾸구, 아들 낳았어요. 두 번째는 어딜 산속에 갔는데 풀속에 무슨 놋대접 같은 거가 있어서 그걸 캐가지구 치마폭에다 꾸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딸이야. 그리고 셋째는 여기 왔던 아인데, 호박을 땀어요. 호박을 남의 울타리에 돌이 열렸는데 하나만 따갖고 왔는데, 아들이야. 넷째 날 때는 뱀이 두 마리데 그냥 한 마리가 땀 데로 가고 하나는 우리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마자 끌어 들이니 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만 들어오는 거만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 낳 땀데 달 돌을 봤어. 달을 돌을 봤어. 달 돌을 봤는데 그런데 집 끝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깐 앞에 하나 있고, 저 뒤로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있지 않고 하나 앞에 있고 뒤로 이렇게 있고 근데 인제 그게 쌍둥이야. 아들 쌍둥이.”

(2) 홍O순 씨의 경우

첫 아이 낳을 때는 꿈에 구렁이(구렁이)를 보았는데, 아주 무서웠다. 아들이었다. 둘째를 배었을 때는 산에서 돼지 3마리를 주웠다. 아들이었다. 딸을 가졌을 때는 머리핀, 밤등을 주웠는데, 그게 아주 희한한 일인 것 같다.

(3) 조O순 씨의 경우

딸을 낳을 때는 꿈에 친정에 가서 새까만, 아주 새파란 호박을 누가 볼까봐 몰래 따왔다. 아들을 낳을 때는 꿈에 용을 타고 날으는 꿈을 꾸었다.

2) 출산

출산을 할 때 대체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산일을 도왔다. 6·25전쟁 기간이나 휴전 초기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워 친정어머니가 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개 시어머니가

산일을 도왔다. 시어머니가 없을 때는 남편이 돕기도 했다. 김O예 씨의 경우는 아이를 6명 낳았는데, 첫 아이만 과주병원에 가서 낳고 아래로 5명은 집에서 혼자 낳아 삼을 갈랐다. 어떤 때는 밭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낳은 적도 있었는데, 끝에는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특별한 의례를 치룬 후 아이를 낳은 사람은 홍O순 씨의 경우다. 홍O순 씨는 3남 2녀를 두었는데, 두 딸은 어려서 죽었다. 홍O순 씨는 첫 아이를 낳을 때 경험했던 특별한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1) 안전한 출산을 위해 했던 의례들

① 아이를 빨리 낳기 위해 많은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이슬이 보인지 3일만에 아이를 낳았다. 이를 아이를 3일이나 ‘비슬렀다’고 말했다. 그런데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를 처음 낳는 것이라 언제 낳을지, 얼마만큼 아파야 낳는 것인지 몰라 이 문으로 나갔다 저 문으로 들어오고, 이 문으로 들어갔다 저 문으로 나오길 수백 번이나 하며 많은 고생을 했다. 그 동안 외숙모도 오고 우야 할머니도 왔는데, 산일은 친정어머니와 이분들이 도왔다.

② 아이를 빨리 낳게 하려고 피마자 나무를 꺾어다 방의 네 구통이에 세워 놓아

방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 하도 힘들어 하니깐 후딱 낳으라고 바깥에서 피마자나무를 꺾어다 방의 네 구통이에 세워 놓았다.

* 마을회관에 함께 있던 다른 분들이 홍O순 씨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구동성으로 그게 예방이라 했는데, 조O순 씨만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O순 씨는 태 못 낳으면 피마자나무를 꺾어다 네 구통이에다 세우는데, 낳으면 후딱 걷어치워버려야지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고 했다. 김O순 씨는 OO어머니가 애기 낳을 때 피마자나무를 세워 놓았어야 했는데, 밑에다 놓고 그 위에 깔구 앉아서 애기를 나오라고 해서, 애기가 놀려서 죽었다고 했다.

(2) 태의 처리

홍O순 씨는 애기를 낳을 때 밑에 양회푸대 종이 같은 것을 놓고 낳았다. 후에는 벗겼

으로 그걸 찌서 바깥에서 불에 태워버렸다. 태울 때는 먼저 모태불을 만들고 주변에 돌을 두서너 개 놓은 후 거기에서 태운다. 김O에 씨도 태줄을 불에 태웠다.

(3) 미역국 먹기

출산 후에는 모두 미역국을 먹었다.

(4) 삼신상 차리기

아이를 낳으면 당일엔 상에다 밥과 미역국을 올려 아이가 있는 방 아랫목에 놓았다. 홍O순 씨의 경우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삼신상이라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3) 인줄치기

대부분 아들을 낳으면 새끼줄에 고추를, 딸을 낳으면 새끼줄에 솟을 끼워 걸었는데, 이것을 '인줄'이라 했다. 김O연 씨의 경우는 전에 초가집일 때는 대문이 있어 이것을 달았는데, 지금처럼 양옥일 때는 달 곳이 없어 달지 않았다고 한다. 인줄은 집에 애기를 낳았으니 외부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인데, 대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었다.

4) 이름 짓기

아이의 이름은 대개 할아버지가 지어주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동네에서 한학을 하는 어른한테 지어 받는다. 옛날에는 동네의 단골만신과 의논하기도 했다.

대성동은 강릉 김씨 동원군과 집성촌이기에 대개는 향렬을 중시해서 지었다. 현존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보면, 김남O → 김O래 → 김동O → 김O유 → 김용O → 김O현 등으로 내려간다. 향렬에 따른 이름은 동족집단 내에서 위계질서를 확립시켜 주는 동시에 같은 동족 및 혈족임을 상기시켜 상호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5) 애기를 처음 보러 갈 때

옛날에는 애기를 처음 보러 갈 때면, 실 같은 것을 사다가 아이한테 걸어 주기도 했다.

6-2 100사람이 나눠먹은 백설기 - 백일과 돌

아이가 태어난 지 백 일째 되는 날을 백일이라 하여 특별한 의례를 했다. 또 태어난 지 일년이 되는 날을 돌이라 하여 특별한 의례를 행하기도 했다. 이야기를 해 주신 많은 분들은 그 때는 전쟁이 난 뒤라 먹고 살기 힘들 때여서 무슨 잔치를 해줄 수 있었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백설기나 수수팥단지 정도를 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했다.

1) 백일

(1) 김O에 씨의 경우

백설기를 한다. 백설기는 백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좋다고 하여 이웃끼리 나눠 먹는다. 백설기 떡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하여, 예전에는 떡을 담아간 그릇에 쌀이나 팥 등을 담아주었다. 요즘은 그냥 돈을 담아 준다. 백일에는 아이에게 오래 살라고 실을 걸어 주기도 했다.

(2) 홍O순 씨의 경우

백설기를 하고,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다가 반찬을 해서 동네 어른들을 모셨다.

2) 돌

(1) 김O에 씨의 경우 애기의 돌이 되면 집에서 송편, 백설기, 수수팥단지 같은 것을 해서 나누어 먹었다. 대성동마을에서는 예전에는 돌이나 환갑 등 큰일이 있다 하면 어른 아

이가 다 그 집에 와서 먹는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외부로 나가 먹느라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2) 홍O순 씨의 경우에는 친정어머니가 ‘칠칠하셔서’ 아이 셋을 다 백일과 돌을 차려 주었다.

(3) 돌상에는 실, 연필, 돈 같은 것을 놓고, 아기가 제일 먼저 무엇을 잡는가를 보는데, 실을 잡으면 명이 길 것으로,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것으로,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홍O순 씨는 이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 때나 똑같이 한다고 했다.

6-3 트럭타고 온 시집 - 혼례

대성동에서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거의 전통혼례 방식으로 혼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는 대개 외부로 나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다. 휴전이 되기 직전 마을 주민 중 김O래 씨가 전통혼례로 혼인을 했다. 휴전 후에는 김O예 씨 및 김O래 씨가 혼인을 하였는데, 모두 이 방법으로 하였다. 대성동에는 원래 방축골에 행상막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랑이 입을 사모관대와 신부가 입을 활옷을 두었다. 이 옷은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필요시 이용할 수 있었다.

1)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까지 행해졌던 전통혼례

김O래(남, 76) 씨가 들려 준 대성동의 혼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혼례방법은 대개 6·25전쟁 이전까지 많이 행해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잘 보지 못했다고 한다.

(1) 장가들러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을에서는 혼인식 때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대례를 치루고 당일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장가 갈 때, 있는 집 사람은 말을 타고 가고, 없는 사람은 그냥 걸어갔다. 김O래 씨의 형님들은 당시 자동차를 타고 갔다고 한다.

(2) 신랑이 대례를 치루고 다시 마을로 돌아올 때 신부는 가마나 사인교를 타고 시집으로 온다.

(3) 신방 엿보기

신랑이 여자네 집에 가서 장가를 들고 당일 신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 첫날밤을 보내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 옷 벗긴다 하여 사람들은 이를 구경하려고 문틈으로 신방을 엿보았다.

(4) 신랑 달아먹기

장가를 든 후 며칠 후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처가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신랑을 매달고 “너 뭐 먹었어? 너 신부집에 와서 뭐 먹었냐? 하나씩 대라.”며 신랑의 발바닥을 때린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그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내다 놓아야 한다. 신랑을 때릴 때는 별로 아프지 않게 때리지만, 말을 정 안 들으면 아프게 때려야 한다. 그래야 신랑이 말을 하고 음식이 많아진다. 김O래 씨는 “나도 신랑 발바닥을 때려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술 뺏어 먹는 거야. 별 거 아냐.”라고 했다.

* 잔치국수 먹기

혼인식을 할 때 신랑집에서는 국수를 삶아서 동네잔치를 했다. 국수를 삶은 후 그 위에 괴명(고명 : 계란을 부쳐서 가늘게 썰고 붉은 실고추를 가늘게 썰어 올리는 것)을 얹어주는 데, 맛이 아주 좋았다. 국수는 지금처럼 그냥 일반국수이지만, 옛날에는 봉다리가 아주 커서 한 봉다리를 삶아도 양이 아주 많이 나왔다. 국수를 만들 때 소금을 많이 넣는지 너무나도 짜서 삶으면 물에 행구어야 했다. 당시에는 혼인식 때 국수를 대표적으로 먹었는데, 여기에서 ‘잔치국수’라는 말이 생겼다.

* 재꾸러미 썩기

- 신랑이 이 동네 처녀에게 장가들러 왔을 때는 ‘재꾸러미 썩기’를 했다.
- 혼인식을 하려고 신부집에서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 마을에 온 신랑은 우선 옆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대례를 치루려고 여자네 집 대례상 앞으로 다가온다. 이 때 사람들은 재를 봉투에 담아 두었다가 신랑에게 던진다. 이를 ‘재꾸러미 썩기’라 한다. 예전에는 짚을 땃기 때문에 집집마다 재

가 많아서 재 걱정은 없었다. 신랑은 재꾸러미를 안 맞을려고 재빨리 신속하게 가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신랑에게 재를 뒤집어 씌운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장난이 심해 심지어 삼태기에 재를 가득 담아 들고 있다가 들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재꾸러미 씌기를 할 때 사람들은 모두 재미있어 하면서 웃고 장난한다. 신랑이 재를 뒤집어쓰면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달려들어 다시 깨끗하게 닦아준다. 그 후에 신랑이 대례상 앞으로 나아가 신부와 맞절을 하고 나면 의식이 끝난다. 후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 이런 '재꾸러미 씌기' 때문에 옛날에 장가오는 사람은 아주 고역이 심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의식을 볼 수 없다.
- 또는 다음과 같은 장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하려고 할 때 동네사람들이 손에다 구재를 발라 신랑에게 달려들어 신랑의 얼굴에 그것을 발라 주기도 했다. 구재란 굴뚝에 끼어있는 꼬임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짚불을 많이 땃기에 굴뚝에 항상 까맣게 그을린 꼬임, 즉 구재가 많았다.

2) 휴전을 전후하여 행해졌던 결혼식

휴전을 전후하여 마을에서는 여러 집안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다. 김O래 씨는 외부에서 들어온 권O순 씨와 결혼한 예이고, 김O예 씨의 경우는 남편 최O득 씨가 데릴사위로 들어온 경우이며, 남O옥 씨는 외부에서 살다가 이 마을 사람인 김O래 씨와 결혼해 들어온 경우이다. 현재 이들 남편이 되는 분들은 모두 고인이 되었다. 김O래 씨는 마을마다 있던 혼례복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치르기는 어려울 듯 하다고 했다.

(1) 김O래 씨와 권O순 씨의 결혼

두 사람은 휴전되기 한 달 전에 결혼을 했다. 권O순(여, 81) 씨는 친정이 원래 진선면 선적마을이었는데, 전쟁이 발발하여 가족이 모두 작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감바위로 옮겨 살고 있었다. 이곳은 태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친할아버지는 늘 태성으로 놀러 다녔다. 그러다가 사위감을 보고 손녀딸을 증매하여 혼인이 이루어졌다. 혼인 전에 시어머니와 작은 시어머니가 될 분들이 권O순 씨 집에 와서 선을 보고 갔고, 마음에

들어 혼인이 이루어졌다.

혼인식 전날 권O순 씨는 할아버지를 따라 태성에 있는 김O래 씨 집으로 걸어왔다. 아직 전쟁이 한창이라 길에는 인민군들이 썩썩 총소리를 내며 거리를 오가고 있을 때였다. 권O순 씨는 신랑집으로 와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신랑집에서 혼례를 치루었는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다. 신랑은 자기집을 두고 옆집에 있다가 사모관대로 갈아입고 와서 식을 치렀다. 결혼식 절차를 물었더니 “아유, 텔레비에 나오는 거와 똑같아”라고 했다. 혼례를 치룬 이튿날부터 시할머니의 똥오줌 오강을 받아냈고, 전쟁 중이라 아무 혼수도 준비할 수 없었던 그녀는 이 일로 시누이한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하기도 했다.

(2) 최O득 씨와 김O예 씨의 결혼

강릉 김씨인 김O예 씨(여, 77)는 이 마을 토박이인데, 18살 때인 1955년 26살이던 최O득 씨와 결혼하였다. 당시 최O득 씨는 태성 근처 마을인 어룡개에서 살다가 6·25전쟁이 나자 잠시 외부로 피란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후에 마을에서 보초를 서다가 총상을 입어 크게 다쳤다. 후에 인천 월미도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돌아와 몸이 아직 불편한 상태였다. 이 때 김O예 씨는 불고였던 아버지가 6·25전쟁 때 이북으로 끌려가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동네분들의 주선으로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 결혼식을 했는가를 물으니 “요즈음도 텔레비 보면 결혼식 하는 거 많이 나오대. 왜 쪽두리 쓰고 하는 거 말야. 그거와 똑같이 했어. 활옷두 입구”라고 했다.

(3) 김O래 씨와 남O옥 씨의 결혼

남O옥 씨(여, 80)는 남편이 김O래 씨다. 남편은 강릉 김씨로 대성동 토박이인데, 두 사람은 1954년에 결혼을 하였다. 이 때 남편은 21살, O옥 씨는 20살이었다.

남O옥 씨는 고향이 개성 근처 장단역이었는데, 막내딸로 위로 오빠가 다섯이 있었다. 장단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덕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6·25전쟁이 나서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그 때가 16살이었다. 열두 명의 식구가 서울 마포로 피란을 나갔는데, 서울에 가서 보니 인민군들이 거리에 가득하고, 포로 한강다리를 끊는다 하여 다시 오빠가 살고 있는 금촌으로 돌아왔다. 먹고 살기 위해 잠시 서울로 나갔다가

다시 오빠가 살고 있는 금촌으로 돌아와 보니 외사촌 아주머니가 중매를 해 놓은 터여서, 선을 보고 다섯 달 만에 김O래 씨와 결혼을 했다.

그 때는 친정아버지가 놀메(현재의 통일촌 근처)에 살고 있을 때여서 혼인식은 여기에서 했다. 전통혼례로 하기 싫어 신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만 전통혼례로 혼인식을 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싫어 족두리도 안 쓰고 그냥 치마저고리만 입고 했다. 그리고 식도 그냥 절만 하고 말았다. 혼인식은 아주 우습게 했는데, 휴전 때라, 그리고 전쟁 후에 하는 것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고, 마을 사람이라 해도 집안네 식구들만 조금 있었다.

혼인식 전날, 신랑이 사주단지하고 함을 직접 가지고 왔다. 함에는 사주단지, 혼서지, 옷감 몇 가지, 꿩물로 금가락지 다섯 돈과 시계가 있었다. 시계는 아주 예뻐는데, 미제였다. 시계는 나중에 시누이가 학교를 다녀 그냥 주었다.

잔치날을 잡아 대례를 치렀는데, 대례는 대례상청을 차려 놓고, 상 위에는 과일 몇 가지와 떡을 줌 놓고 맞절을 했다. 이 날 '재꾸러미 던지기' 같은 것도 했는지를 물으니, 신랑이 차 타고 오는 것이라 급해서 그런 것은 안 했다고 하였다.

대례를 치루고 나서 대성동으로 갔는데, 마을에 들어 올 때는 미군 제무시 트럭을 타고 들어왔다. 시집에 처음 왔을 때 시집에서는 상에 음식을 차리고 조상님들의 지방을 써서 붙인 뒤 절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사당차례'라 하였다. 생전 절을 해본 적이 없어, 절도 할 줄 몰라 집안의 손위 동서가 되는 분이 치맛자락을 잡아 일으켜 주었는데, O옥 씨는 "절은 많은데 헐 줄은 모르고, 아주 혼났어. 그 때." 라고 지금도 말한다.

이날 저녁에 시집에서 자지 못하고 다시 마을 밖으로 나와야 했는데, O옥 씨의 패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친정으로 가 첫날밤을 보내고 패스를 만들어 일주일 후에 다시 트럭을 타고 대성동으로 들어왔다. 마을에 와서 보니 시집은 먹고 살만은 한 것 같았다.

남편은 외아들이었는데, 시집을 오니 시부모와 시누이가 셋 있었다. 그 때 막내 시누가 아홉 살이었다. 시집살이는 별로 하지 않았지만, 밥도 할 줄 몰라서, 그리고 농사를 지을 줄 몰라 고생을 아주 많이 했다. 친정은 전부 교육자로 농사를 많이 안 지었기에 O옥 씨도 별로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농사일을 많이 거들다보니 힘이 들었다. 자녀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현재는 막내아들과 살고 있다. 장남 김O현 씨는 예전에 6년간 마을 이장을 한 적이 있고, 둘째 아들 김O구 씨는 현재 이장을 하고 있다. 두 아들은 모두 마을에 거주하면서 크게 농사를 짓고 있다.

(4) 트럭 타고 시집은 마을의 며느리들

휴전 이후 약 10여년 이상 대성동은 거의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흙먼지를 덮어쓰며 미군들이 운행하는 트럭을 타고 다녀야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다수의 주민들이 이 트럭을 타고 다니며 혼인을 했다.

① 박O선 씨(남, 82)는 처가가 파주 주내면이다. 27살에 파주 주내에 살고 있던 김O연 씨(여, 76)에게 장가들어 그곳에 가서 대례를 치루었는데, 대례를 치루고 마을로 돌아오는 날 신랑 신부가 함께 마을로 들어올 수 없게 되자 성질이 나서 그냥 신부를 팽개치고 오려고 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김O연 씨는 마을회관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그 때 내팽개쳤으면 내가 시집살이는 안 했을 것이라 하여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다.

② 마을에 살고 있는 이O순 씨(여, 80)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옛날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요, 거기서 또 일주일씩 있어야 들어와요. 그 전엔 흙먼지가 돼서 담요 쓰구 다니구. 문산 가면 뭐 사람 같지도 않지. 시집 오는 색시들두 트럭 타구 왔는데요 뭘. 저 O정 아주머닌 트럭타구 왔어.[중략] 아, O수 엄마두 그 때 여기 테러들 있든 게 다 와서 그냥 요렇게 한쪽 구텡이에 앉히구 담요를 꼭 씌워가지구. [중략] 그런데 그냥 아유, O수 엄마 시집을 땀 그냥, 그래서 내리니깐 그래두 담요가 되니깐 다 털어서, 쪽두리 그런 건 다 벗어지구 퍼런 저고리가 노란 저고리가 그걸 입구 왔어. 그리구 O수 엄마 동짓달 열 사흘날이야. 열흘 나누고 왔어.”

3) 1970년대 이후부터 행해진 예식장에서의 결혼식

1970년대에 이르면 사람들이 대개 문산이나 금촌, 파주, 서울 등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김O래 씨는 1974년 36살에 중매로 당시 33살이었던 홍O표 씨를 만나 서울 돈화문 앞에 있는 00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아마도 대성동 주민 중에서는 제일 먼저 예식

장에서 결혼식을 한 경우일 것이라 했다. 그 때 찍은 흑백으로 된 결혼식 사진이 남아 있다. 부인의 고향은 강원도 삼척인데 학교도 그곳에서 다녔다. 후에 서울로 올라와 살 때 O래 씨를 만나 결혼을 했다. 부인은 처음에 농촌을 잘 몰랐는데, 대성동에 와 살면서 농사를 짓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6-4 안하고 죽으면 원혼이 된다고 - 환갑

옛날에 마을에는 ‘예순이 넘어 환갑잔치를 안 하고 있다가 죽으면 원혼이 된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죽기 전에 한다고 60세가 되면 대개의 사람들이 환갑잔치를 했다. 환갑잔치는 주로 집에서 했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차려 드렸다. 집에서 떡, 과일, 과자 등을 넉넉히 준비해서 상에 높이 차린 후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 때 웬만한 집에서는 후방에서 기생을 불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 때는 별로 돈을 많이 안 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 김O예 씨는 마을 사람들이 환갑잔치 때 기생을 많이 불렀던 편인데, 자신의 친정어머니도 이렇게 했다고 했다.

대성동마을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약 15년간 30회에 걸친 마을의 부조상황이 기록된 『婚喪甲契(혼상갑계)』 자료가 있다. 표지에 ‘甲’자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는 비교적 환갑잔치를 많이 한 편이고 서로 부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언제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무슨 목적으로 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 이들 부조가 혼·상·갑 중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환갑잔치는 별로 하지 않고, 대신 칠순잔치를 한다. 그리고 칠순잔치라 하더라도 집에서 하지 않고, 문산이나 금촌 같은 곳에 나가 식당이나 회관을 빌려서 한다.

6-5 남은 자들의 의례 - 상장례(喪葬禮)

상장례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과정까지의 절차, 혹은 의례를 말한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거의 대부분 매장을 했는데, 집에서 장지까지 상여를 이용하여 시신을 옮겼다. 예전에는 마을 주변 지역인 방축골에 마을의 상여를 놓아두는 행상막이 있었다. 이곳은 6·25전쟁 때 불타서 없어졌다. 이 지역은 현재 군인들이 에스코트를 해야 갈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 지금은 마을 공회당 뒤편인 공수골(논이름)에 콘테이너를 놓고 이 안에 상여를 넣어두고 있다.

상여는 예전에 사용하던 것이 낡아서 약 20여 년 전에 동대문에서 새 것을 사왔다. 전 이장이었던 김O찬 씨의 조부인 김O용 씨가 제일 먼저 이것을 탔는데, 이 분은 99세에 돌아가셨다.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이 상여를 사용한 것은 약 10년 전인데, 김O구 씨의 부친인 김O래 씨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지금은 초당굴이나 김천말, 허릉굴 같은 곳에 묘지를 많이 쓰는 편인데, 휴전 후부터는 주변에 있는 산에 자유롭게 매장하고 있다. 장지는 가까운 곳은 한 시간 이내인 경우도 있지만, 멀면 그 이상 걸리는 곳도 있다. 현재는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장지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어려울 지도 모른다. 이쪽에도 원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회복등기를 내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써 놓은 묘소는 어찌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묘소 쓰는 것을 제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망자는 집안의 안방에 모시고, 바깥쪽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대성동은 출입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초상이 나도 문상을 오는 사람들이 적었다. 옛날에는 동네에 초상이 나면, 3일간 ‘동네 개까지 그 집에 가서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먹으며 일을 분담하여 도왔다. 전 이장이었던 김O찬 씨의 부인인 황O의 씨(여, 48)는 10년 전인 2004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일이 엄청 많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도와서 초상을 잘 치를 수 있었다고 하며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김O찬 씨의 할아버지였던 김O용 씨는 아들 셋과 딸 넷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 나가서 제이씨와 같은 곳에서 사회활동을 했고 잘 살았다. 그런데 이들 세 아들과 네 딸이 모두 인맥이 좋아서인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님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마을회관

사무실 마당을 뺨 둘러 차를 댈 곳이 없을 정도였다. 결과로 3일간 장사를 치르는데 음식비만 2,000만원을 썼고, 두부를 만드는 데만 해도 콩이 두 가마나 들어갔다. 이런 엄청난 일을 모두 마을 사람들이 도와서 잘 치러낸 것이다.

전O권 씨(남, 70)는 고(故) 김O래 씨에 이어 마을에서 유일하게 상여소리를 할 수 있다. 그가 들려준 대성동의 전통적인 상장례법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상장례

(1) 사젯밥을 지어 사제공양을 드린다.

사람이 운명하면 먼저 밥을 지어서 접시에 조금 놓는데, 이런 접시를 8개 만들어 상에 놓고 집의 대문 같은 곳에 놓아둔다. 이 밥을 사젯밥이라 하는데, 사젯밥을 대문 같은 곳에 놓아두는 것을 사제공양이라 한다.

(2) 후에는 돌아간 사람의 윗옷을 가지고 흔들며 이름을 부르는데 “장단군 군내면 조산리 망자 (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홍길동이면) 홍길동 옷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라고 3번을 외치고 그 옷을 지붕에다 올린다. 그러면서 장례절차가 시작된다.

(3) 마을에 초상이 난 것을 알게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집으로 집결을 한다. 예전에는 초상일을 마을의 어른인 김O희 씨와 김O래 씨 등이 주관했는데, 이 분들이 젊은이에게도 가르치기 위해 전O권 씨 등을 데리고 문산으로 나가 상점을 다니며 상포를 흥정하여 삼베, 광목 등을 사 가지고 왔다. 그러면 여자들은 이것으로 상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삼베로는 상주 상복을, 광목으로는 여자들의 상복을 만들기 시작한다. 3일장을 해야 하므로 수의도 이 때 재빨리 만들어 놓는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마을의 젊은이들 이래봤자 이 동네 젊은이들뿐이었으므로 몇 명 안 되는데, 나가서 장지를 알아보고 준비를 한다.

(4) 돌아가신 날 저녁에 상식을 올린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아침상식을 드린다.

(5) 만일 오늘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이튿날 오후가 되었을 때 염습을 한다.

전O권 씨의 경우에는 다른 때는 엄두가 안 나서 염습하는 것을 보지 못하다가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주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염습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 칠성판에 모시는데 염을 할 때는 잠시 내려놓고 한다. 먼저 알콜 같은 것으로 시신을 씻긴 후, 손갈로 약간의 쌀을 떠서 망자의 입에 넣어준다. 후에 수의를 입히고 삼베를 이용하여 열두 매로 묶는데, 뼈가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꼭 조여매야 한다.

열두 매를 묶는다는 것은 베를 적당한 길이로 여섯 조각으로 잘라 시신의 밑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놓은 후, 6조각의 양쪽을 갈라 시신을 가운데로 하여 양쪽으로 묶으면 열두 매디(마디)가 되는 것이다. 염습 후에는 입관을 하고 조문객을 받는데, 저녁에는 상식을 올린다.

(6) 다음날 아침, 즉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젊은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묘지에 가서 지관이 전날 표시를 해 놓은 네 귀퉁이의 표시를 보고 땅을 파기 시작한다. 묘지는 결코 전날부터 미리 파서는 안 되는데, 만일 미리 파는 일이 생긴다면 밤에도 그곳을 지켜야 한다.

묘지는 먼저 광정을 파고, 후에는 모토를 뽑는다. 모토를 뽑는다는 것은 광정 아래 가운데에 시신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네모난 땅을 파는 것이다. 모토를 뽑을 때는 바닥은 조금 넓게 하고 위는 조금 좁게 하는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7) 상여꾼들은 아침에 상여를 가지고 상가집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안에서 관을 메고 나와 이를 상여에 모신다. 방안에서 관을 끈으로 매어 메고 나오는 사람들(양쪽에 3명씩 모두 6명은 관을 들어 네 귀퉁이에 대고 “중기료, 중기료, 중기료” 하고 세 번을 외치고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전창권 씨도 모르겠다 했다. 관을 방에서 들고 나와 상여에 모실 때는 방문 앞에 바가지를 두었다가 맨 앞 사람이 이것을 밟아 깬 후 나와서 관을 상여에 모신다.

(8) 상여가 떠나기 전에 발인제를 한다. 발인제란 상여 앞에 제물을 차려 놓고 상주들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이다. 상여를 댈 때는 10명이 댈 수도 있고, 12명이 댈 수도 있는데, 한 줄에 5명, 혹은 6명이 서야 하기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한 것이다. 짝수로 해야 발이 맞아서 상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상여꾼들은 짝수로 한다. 상여가 떠날 때부터 상여소리를 시작하는데, 상여꾼들은 상여소리에 맞추어 발을 댈다.

(9) 묘지에 갈 때 상여꾼들은 간혹 조그만 개울이나 다리 같은 곳에 멈추어 서서 가지 않고, 상여가 안 움직인다 하면서 상주들에게 노자돈을 놓고 절하라고 한다. 그러면 상주들은 돈을 놓고 절을 하는데, 이렇게 하여 모은 돈은 나중에 상여 같은 것을 새로 사거나 하는데 쓴다. 묘지에 거의 다 가서도 이런 장난을 하지만 일단 묘지에 올라가면 이와 같은 장난은 하지 않는다. 이런 장난을 할 때는 절대로 상여를 땅에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장지까지의 거리가 멀어 상여꾼들이 힘이 들면 중간에 상여를 내려놓고 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쉬는 횟수는 홀수가 되어야지 짝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상여꾼들은 중간에 세 번, 다섯 번, 혹은 거리가 워낙 멀면 일곱 번까지도 쉴 수 있다.

(10) 하관을 할 때는 지관이 몇 살 몇 살 먹은 사람, 혹은 무슨 무슨 성씨는 하관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빠져야 한다. 잘못하면 살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관은 대성동마을에는 없었고, 문산이나 금촌에서 모시고 왔는데, 금촌에는 이〇기라는 분이 유명했다.

(11) 하관 후에는 퇴관을 하여 시신만 모토에 모시는데, 퇴관이란 관에서 시신만을 꺼내는 것이다. 남은 관은 나중에 다른 부산물과 함께 불에 태운다. 산일에는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도 한 쪽 편에 반드시 불을 피워놓고 일을 하는데, 여기에도 남은 관을 태우는 것이다.

(12) 모토에 시신을 모신 후에는 위에다 횡대(橫帶)를 덮는다. 횡대(橫帶)는 개죽나무나 소나무로 만든 널판지로 모두 11개를 세로로 덮는다. 횡대(橫帶)는 원래 개죽나무가 가장 좋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대성동에서는 주변에 소나무가 많아 이것으로 횡대(橫帶)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횡대(橫帶)는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11개를 쓰는데, 통나무를 반을 쪼개면 12개 짝수로 나오지만 하나는 버리고 11개만 쓴다. 횡대(橫帶)는 12개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13) 횡대(橫帶)를 덮는 일이 끝나면 위에다 백회를 뿌린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백회와 흙을 3:1로 섞어 물로 개운 것을 광중의 1/3이 되도록 채우고 다지기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세 번 반복하면서 다지기를 하는데, 다지기를 할 때는 달고소리(희다지기 노래)를 하면서 한다. 나중에는 흙만 넣어 다지고 후에는 봉분을 한다. 이렇게 하면

회가 아주 단단하게 다져져서 나중에 혹시라도 시신을 이장하기 위해 묘소를 파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팔 수 없다. 이때는 포크레인으로 파야 한다.

(14) 봉분을 올릴 때는 다지기를 하거나 상여소리를 하지 않는다. 가래로 그냥 동그랗게 봉분을 모으고 때를 입히면 묘가 완성되는 것이다. 봉분이 다 되면 잔디 같은 것을 입히고 후에 제사를 올린다. 이것으로 의식이 모두 끝난다.

* 상석 같은 것은 이 때 하면 안 되고, 다음해 청명이나 한식 같은 때에 하는데, 이것도 되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있다.

(15) 제사를 지낸 후 상주들은 위패를 모시고 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따라서 돌아와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혼령이 제사 같은 것을 드시러 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6) 집에 오면 가지고 온 위패를 모시고 상청을 차린다. 상청은 3년을 모셨다가 탈상하는데, 탈상하기까지는 매일 조석으로 상식을 드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삭망을 지낸다. 삭망에는 반드시 곡(哭)을 한다.

* 옛날에는 원래 3년 탈상을 했었다. 나중에는 백일 탈상을 하다가 지금은 49일만 하는 집이 많다. 요즘은 49재를 지내고 바로 절에다 모시는 일이 많다.

2) 자리건이¹⁷⁴⁾

옛날에는 장례를 치루고 돌아오는 날 저녁에 만신을 불러 '자리건이'를 하는 집이 많았다. 자리건이는 만신이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망인의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주로 망인이 상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러면 상주들은 그 말을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자리건이란 만신이 죽은 사람의 입내를 내면서 망인의 흉내를 내는 것인데, 말하자면 배뱅이굿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74) 김〇래(남, 76) 제보

요즈음도 자리걸이 하는 집이 간혹 있지만, 주로 여자들이 모여서 하니까 남자들은 잘 가지 않는다. 요즈음은 자리걸이를 하는데 돈이 천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잘 하지 못한다. 대성동이 태성으로 불렸을 때는 '나리굴 무당'이라고 해서 감바위에 살았던 안순예라는 만신이 와서 자리걸이를 해 주었는데, 그녀는 이 동네의 단골만신이였다. 6·25전쟁 후 이 만신은 마포에서 살았었는데, 나중에 간혹 마을에 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3) 상계의 내용 분석

요즈음은 장례식을 외부로 나가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돈으로 부의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예전에는 마을에 상계가 조직되어 있어, 마을 사람이 상을 당하면 일정액을 부조하고 운력을 했다. 운력은 계주나 소임이 총괄하여 진행하는데, 계주나 소임은 문산에 나가 상포를 다니며 삼베, 광목 등을 흥정하여 사오고, 젊은 청년들은 장지와 관련된 일을 맡고, 여성들은 주로 상복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물 및 마을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부조 상황은 마을에 남아 있는 혼상갑계부『婚喪甲契簿』 및 상계부『喪契簿』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혼상갑계부』는 1967년 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1982년 4월 12일까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에는 총 30회의 내용이 있다. 『상계부』는 1991년 2월 13일부터 시작하여 2014년 3월 17일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29건의 행사내용이 들어 있다. 1982년 4월 13일 이후부터 1991년 2월 12일 이전까지, 약 9년간의 자료는 없는데, 원래 없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분실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상계부』는 분명히 상을 당했을 때만을 위해 부조를 하고 있는데 반해, 『혼상갑계부』는 자료의 이름처럼 혼·상·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안에는 혼상갑 중 어떤 상황에서 부조를 한 것인지 적혀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의 자료들을 참고하면 대성동마을에서는 적어도 1967년 1월부터는 상계가 조직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 계주는 金O熙(김O희) 씨였고, 소임은 김O래 씨가 맡았다. 상계를 처음 조직할 때 돌린 통문에는 계를 신설한다는 뜻을 적고, 계원들의 이름을 죽 나열한 후 그 밑에 지문이나 도장을 찍게 하여 동참의 뜻을 묻고 있다.

婚喪甲契 新設 通文 서기 1967년 양 1월 23일 계장 김O희(金O熙) 소임 김O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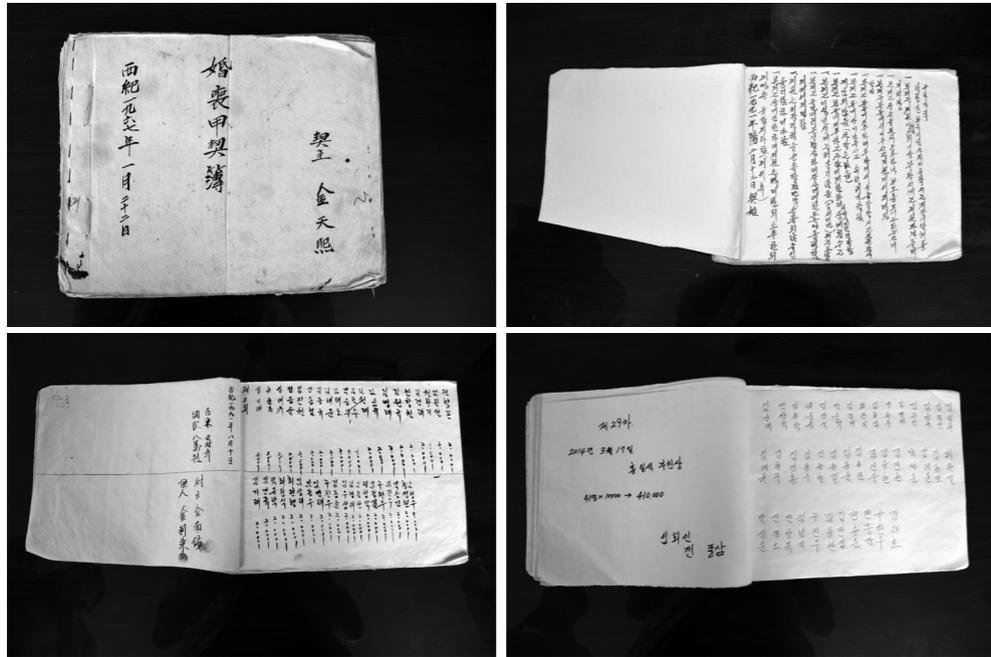
서기 1967년 1월 20일부터 본 계를 신설하옵기 이에 통고하나이다 전 계원은 백미 2되 대전 백 원씩을 지참하시고 유O목 씨 자택으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계원 이름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계장 및 소임을 포함하여 전체 이름이 37명임)

이날 아마도 많은 계원들은 백미나 돈을 들고 유O목 씨 집에 모여 마을에서 혼상갑계를 조직하는 일, 회칙 내용, 부조금을 내는 것과 부조금의 액수 등을 정하는데 동의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혼상갑계부』가 만들어져 있었다. 『혼상갑계부』의 표지에는 날짜가 모임 하루 전인 1월 22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까닭에 계주 등은 마을에 부조할 일이 생기자 계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회칙 등을 미리 만들어 놓은 후 계원들을 모이라고 통문을 보내 계를 조직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내용은 토씨만 한글이고 나머지는 전부 한자인데, 편의상 한글로 바꾸고, 받침도 맞춤법대로 표기하였다.

1. 계원은 계장 명령을 순종할 것. 만약 계장에 명령을 순종치 안을 시는 계에서 제명시킬 것
2. 계원 중 후방에서 상을 당할 시는 하시를 막론하고 전 계원은 참석할 것
3. 계원중지사(契員中之事)가 유할 시 전원 집합할 것
4. 동내지사(洞內之事)를 알고 출타시에는 계주에 승낙 없이 출타치 못할 것
5. 동내지사가 유할 시는 하시를 막론하고 귀가할 것
6. 본동에서 이주 시에는 계원에서 제명됨
7. 본동 거주하며 후방에서 지사를 당할 시는 계원 전원이 행사할 것
8. 契米二升과 代錢 백원은 당일 지참할 것. 만약 불지참 시에는 배상(培賞)할 것
9. 財主가 財差할 시는 保人契員 중 2명을 立證할 것
10. 惜名은 財差치 안음
11. 각 계미2승과 소주 大3斗式 財差함

이러한 규칙을 보면, 혼·상·갑 등의 일이 있을 때 부조금은 계원들 일인당 쌀 두 되씩과 25도짜리 소주로 대두 3말 값을 계원수대로 나누어 그 값을 돈으로 냈던 것 같다. 까



혼상갑계 기록자료(김용성 보유)

답에 처음에는 계원 1인당 쌀 두되와 100원씩이 배당되었다. 마을에 상이 났을 경우, 이러한 부조금은 상주의 재산에 어떤 보탬을 준다고 보다는 내가 비록 그 집일을 돕더라도 '내 밥 먹는 것은 내가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강했다고 한다. 계금을 낼 때는 재주는 제외하고 나머지 계원들만 내고, 계금을 재주에게 전할 때는 보증인을 두 명 세워 그것이 분명하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였다. 혼상갑계가 조직된 후 처음 계금을 받은 재주는 신O근이란 사람이었는데(1967. 1. 22) 무슨 일 때문에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이때 보증인은 박O대와 김O옥이었다. 그리고 이때 계금은 백미 60되와 술값 2,700원이었다. 계 규칙에 본동, 후방 등등이 들어가게 된 것은 주지하다시피 대성동이란 마을이 출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마을사람들이 자식교육을 위해 후방에도 집을 두고 살고 있어, 본동과 후방 등 이중으로 거주처가 있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동에서 완전히 후방으로 이주했을 때는 계원에서 제명처리 하도록 했다. 1973년이 되면, 술값이 완전히 배로 뛰어 부조가 백미 2되에 술값이 200원이 되었다. 1974년에는 또 2배로 되어 술값으로 내는 돈이 각자 400원이 되었다. 1981년에는 술값이 1,200원이다.

1991년 초에 『혼상갑계부』가 『상계부』로 바뀌었다. 김O희 배상으로 되어 있는 2월 16일의 통문을 보면 계명칭은 '유합계'라 하고, 구계는 끝났으므로 신계를 신설한다고 되

어 있고, 나열된 기명 밑에 지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다. 상계부 표지에는 『喪契簿』 서기 1991년 2월 계장 - 소임 전O권으로 되어 있다. 1면에는 계가 양 2월 13일에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명칭 및 규칙이 나와 있다.

앞의 혼상갑계부와 계의 규칙이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계명칭을 새롭게 '유합계'로 정했고, 상에만 한하며, 백미 한 되 소주 한 되를 지참하는 것으로,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보고 미성년자에게는 해당치 않는 것으로, 본동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는 것으로, 그리고 장손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에 재차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참 시는 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계장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부조금은 백미 1되 값도 따로 적어 놓은 것으로 보아 쌀로 낼 수도 있고, 돈으로 환산하여 술값과 합쳐서 낼 수도 있었던 것 같다.

자료를 보면, 1991년, 1992년, 1993년, 1995년, 1996년 등에 마을 어른이 1명씩 사망했고, 1997년과 2000년에 2명씩 사망하다가 2006년에는 마을에서 다섯 분이나 사망했다. 이때는 부조금이 쌀값과 술값을 합하여 7,000원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부조금이 10,000원으로 올라 지금까지 이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1967년도 기록에는 날짜를 양력으로 표기한 것도 있고, 음력으로 표기한 것도 있어 당시에는 아직 양력이 정착하지 못하고, 양력과 음력이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날짜에 양력이라 표시된 것이 1981년 1월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는 완전히 양력이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에 남아 있는 『혼상갑계부』와 『상계부』 내용을 보면, 당시 주민들의 생물 상황, 쌀값과 술값 등을 통한 물가 상승폭 등을 알 수 있다. 이들 상계부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둔다면, 후일 대성동의 중요한 역사자료, 나아가서는 국가의 중요한 사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 내용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4) 현재의 상장례

현재는 사람들이 대개 문산이나 금촌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하기 때문에 병원 영안실이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룬다. 따라서 이곳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요즈음은 상이 나면 영구차를 쓰니까, 그리고 대개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상여를 쓰는 일도, 상여소리를 하는 일도 없다. 전통적인 상장례는 거의 중단된 셈이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거의 매장을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화장을 한다. 그리고 한 동안은 수목장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납골당에 모신다.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가 나면,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병원의 영안실을 찾아간다. 그리고 각자 형편에 맞게 부의금을 내고 있다.

6-6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 - 제례

1) 기제사

(1) 각 가정에서는 조상들이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낸다. 이를 기제사라 하는데, 기제사는 장손으로 이어진다.

(2) 김O예 씨(여, 77)의 경우는 친정부모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었는데, O예 씨가 맏딸이었다. 친정 부모를 집에서 모셨지만 외손봉사는 하지 않는다 하여 친정부모 두 분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대신 여동생이 절에다 따로 모셨다. 현재는 남편 제사만 지내는데, 제삿날 음식을 마련하여 제사상을 차려 놓으면 자식들이 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 김O예 씨는 3월장(醬)은 제사에 쓰지 않는다 하였고, 우환이 있을 때 제사 지내면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 하여,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남편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

2) 시절제

(1) 각 가정에서는 설날과 추석에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낸다.

(2) 대성동에는 강릉 김씨 외에 해풍 김씨 광곡파도 5가구 정도 살고 있다. 해풍 김씨는 김O규 씨(남, 74)의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사는 강릉 김씨 여성과 결혼하여 여기서 살게 되면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할아버지의 고향은 원래 탄현 맞은편에 있는 풍덕이었다. 이곳은 지금 이북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슬하에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김O규 씨는 넷째 아들이었던 김O택 씨의 아들이고, 현재 마을의 노인회장인 김O규 씨는 막내

인 다섯째의 아들이다. 김O규 씨는 6·25전쟁 때 아버지 및 누나와 함께 송포(일산)로 피난을 나갔는데, 그곳에도 폭격이 심해 다시 대성동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고인이 되었다. 마을에 있는 해풍 김씨들은 할아버지 기제사는 안 지내지만, 설날과 추석에 차례는 지내고 있다.

3) 시제

(1) 대성동은 원래 강릉 김씨 동원군과 집성촌이어서 마을에는 현재 강릉 김씨가 14~15호 정도 있다. 그리고 마을 주변에 선산도 있다.

(2) 강릉 김씨 동원군과 후손들은 매년 음력 10월 보름에 모여 시제를 지내고 있는데,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시제는 원래 음력 10월 보름에 행해왔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바빠 평일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 10월 보름 전 일요일에 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음력 10월 15일이 양력으로 12월 6일(토)이기 때문에, 그 전 일요일인 11월 30일 10시 30분경에 모여 시제를 지냈다. 시제에 참여한 후손들은 대략 50여명 전후였는데, 마을에 거주하는 강릉 김씨 후손들과 외부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함께 모였다.

11월 30일 시제를 지내는 날에는 아침부터 많은 비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약 20여명이 참가했다. 강릉 김씨 동원군과 대성동 종친회장은 외부에서 살고 있는 김O래 씨인데 현재까지 20여 년간 종친회장을 맡고 있다. 1·4후퇴 때 폭격이 심해 가족 전체가 마을을 떠나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과 뿌리를 생각하여 종친회장을 맡고 있으며, 해마다 시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일보사에 30여 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

회장의 동생 김O래 씨도 이날 시제에 참석했다. 그는 전에 방송PD로서 30년 동안 유머1번지를 비롯한 수많은 KBS 코미디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는데, 현재는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공채 개그맨을 배출해냈다. 또한 경북 청도에서 진행 중인 한국코미디창작촌 촌장으로 내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한데, 창작촌은 내년 가을에 완공 예정이다. 코미디창작촌은 코미디박물관, 코미디체험관, 코미디극장으로 건평 600평의 150억 프로젝트인데, 완공되면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O래 씨는 서울에 살면서도 고향 대성동을 잊은 적이 없고, 늘 대성동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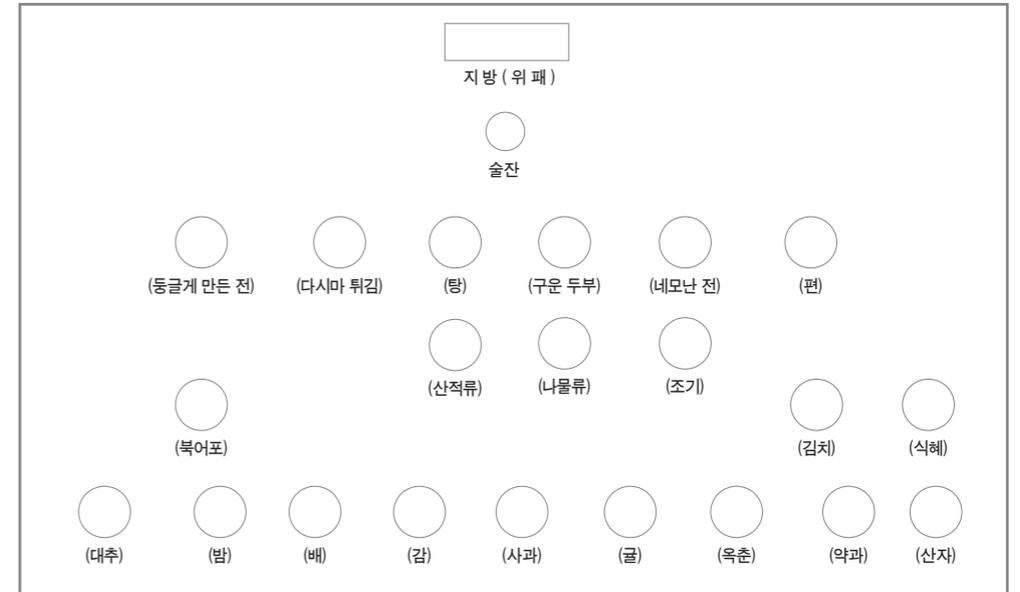
(3) 시제는 처음에는 선산에서 산소마다 찾아다니며 제물을 차려놓고 지냈지만 지금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지낸다. 마을에는 O균이라는 강릉 김씨 종손이 있긴 하지만, 종손 집에서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 마을회관에 모여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각 집에서 돌아가며 제물을 차렸다. 그러나 이것도 어려움이 있어 지금은 시제 전날 마을에 살고 있는 강릉 김씨 며느리들이 모여 함께 제물을 준비하고 있다. 시제를 마을회관에 모여서 하는 까닭은 날도 춥고 한데 여자들이 제물을 준비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여자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다.

(4) 시제의 경비

경비는 종친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1인당 1만원정도 내어 이를 모아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하는 회원은 약 40여명 내외이다.



2014년 시제 제물상 차림(김웅래 제공)



(5) 시제의 제물

2014년 11월 30일 시제의 제상은 다음과 같다.

* 제물의 내용

- 술 : 예전에는 만들어 사용했으나 요즈음은 사서 쓴다.
- 복어포, - 편(시루떡 종류), - 탕(무+두부+말린 복어를 불려서 넣음)
- 산적류(한 접시에 밑에는 돼지고기 산적을 놓고, 위에는 소고기 산적을 올림)
- 생선(익힌 조기 5마리 위에 고명 얹기 : 전통적으로는 송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형편에 따라 송어나 조기를 사용)
- 전류(동글게 만든 전, 네모나게 만든 전 등 두 가지 전류를 만들어 각기 올림)
- 두부(크고 네모난 두부), -다시마 튀김(네모난 굵은 다시마를 튀겨서 올림)
- 식혜(국물 없이 건더기만 넣음)
- 나물류(고사리·숙주나물·도라지 등을 익혀 같은 접시에 담고 위에 고명 얹기)
- 과일류(대추·밤·배·감·사과 등 : 높이를 약 20cm정도 괴어서 놓기)
- 과자류(옥춘, 약과, 한과(산자))

* 옥춘은 오색의 사탕이다.

* 과일 중 귤은 원래 놓지 않는 것이지만, 이날 조사자가 선물로 가져갔기에 성의를

생각하여 올린 듯하다.

* 이 외에 전통적으로 '물쌈'이라는 것을 올렸다 하는데, 이 날은 바빠서 미처 만들지 못했다 한다. 물쌈이란 만두와 비슷한 모양의 음식이다.

(6) 시제의 방법 및 순서

11월 30일의 시제는 마을회관 1층에서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하여 오후 12시 10분경에 끝나 전체적으로는 1시간 40분정도 걸렸다. 의식의 방법이나 순서는 전통적인 유교식이었는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원래는 산에서 지냈던 것이지만, 이제는 시제를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기에 이 날의 산신제는 마을회관 옥상에서 지냈다. 제물은 간단히 주?과?포 정도만 마련하고, 의례는 일을 맡은 1~2인이 진행한다.

② 시제를 받는 신위는 강릉 김씨 시조 김주원으로부터 계산하여 27세손인 수종부터 시작하여 37세손까지다. 모두 합하여 182신위다.¹⁷⁵⁾ 이들 조상들에게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에 전부 6개의 액자를 만들어, 각각의 액자 안에 조상들을 세대별로 분류하여 ~신위라 적고 지방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제를 지낼 때는 6개의 액자를 순서대로 바꾸어 놓고 지방을 대신하면서 제를 지낸다.

1번째 액자 : 27세 조상부터 31세까지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10신위

2번째 액자 : 32세 조상부터 33세까지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11신위

3번째 액자 : 34세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20신위

4번째 액자 : 35세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36신위

5번째 액자 : 36세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53신위

6번째 액자 : 37세 조상의 지방으로 부인까지 합하여 52신위

현재 대성동에 살고 있는 강릉 김씨 후손들은 효자 정려문을 받은 김정주를 중시조로

175) 27세 조상은 수종, 28세 조상은 만성, 29세 조상은 일범, 30세 조상은 극경, 31세 조상은 성선, 32세 조상은 효자 정려문을 받은 정주이고, 33세 조상은 정주의 4아들인 영우, 영두, 영기, 영정이다. 현재 대성동에 사는 강릉 김씨 후손들은 정주의 네 아들의 후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4명으로부터 후손이 퍼져 오늘날의 대성동 강릉 김씨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김정주와 그의 아들 4명 및 그들의 부인이 되는 분들의 신위는 바로 2번째 액자 속에 모셔져 있다.

③ 시제는 액자를 바꿀 때마다 다시 신위 숫자대로 술잔을 바꾸어 놓고 술을 올리며 축을 읽은 후 절을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제의가 6번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6번의 제의 때마다 초헌과 종헌은 종손인 O균 씨가 맡고, 축은 김O래 씨가 읽고 있는데 일일이 액자 속의 모든 신위들을 다 호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아헌은 위계가 높은 후손으로부터 시작하여 낮은 후손 순으로 곁고루 돌아가며 술잔을 올린다. 그러므로 제의가 끝날 때쯤 되면 시제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아헌을 통해 전부 한 번씩은 조상님께 곁고루 술잔을 올리게 된다.

④ 액자가 바뀔 때마다 액자 속의 신위 수만큼 술잔을 올리므로 어떤 경우는 제상에 많은 수의 술잔이 놓이게 되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여타의 시제와 비교하면 매우 이채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⑤ 액자에 신위를 적어 지방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제의가 끝난 후 지방을 불사르는 의식은 하지 않는다.

⑥ 모든 액자는 그대로 김O래 씨 댁에 보관했다가 다음 시제에 다시 사용한다. 신위명, 축문, 흘기 등을 적은 작은 책자도 동일하다. 제기·제상 등은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7) 제물의 처리 방법

시제가 끝나면, 제물을 마을회관 식당으로 옮겨 점심 때 나누어 먹는다. 이날 식당에 서는 5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함께 점심을 먹었다.

(8) 시제 지내는 모습



2014년 시제 지내는 모습(김응래 제공)